

박물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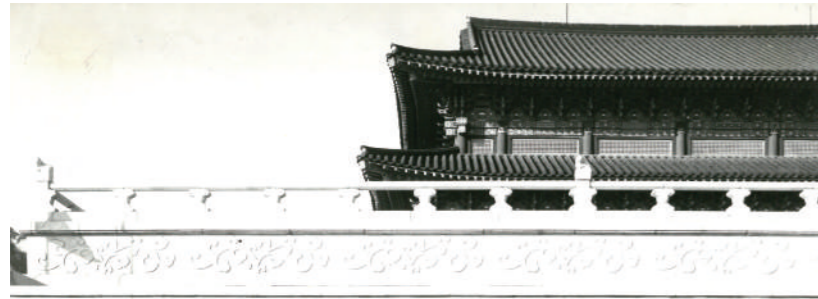
50th Anniversary of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회 창립 50주년 특집

2024년 하반기
85호

第一回 博物館特設講座修了紀念
1978. 2. 24.

2024년 85호

85호 표지엔
특설강좌 1기 수료생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창간일	2003. 3. 15.
발행일	2024. 11. 18.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총괄	이재범
기획, 편집	김 은
제작, 디자인	동방문화
문의	02)790-5092 / fnmk1974@fnmk.org

※회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싶으신 분은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특집 <국립중앙박물관회 창립 50주년>

04 국립중앙박물관회를 만든 박물관인 '최순우' 그리고 거울못 청자정

기획 <박물관강좌>

- 08 특설강좌 47년, 강좌의 시작과 현재
- 12 박물관 고적 답사 가이드 40년을 지나며...
- 16 자원봉사는 즐거움이예요 - 최경자 회원 인터뷰

박물관회에서는

- 18 2025년 박물관강좌 프로그램 안내
- 22 유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 한영민 회원 인터뷰

박물관에서

- 25 브뤼헐은 왜 바벨탑을 그렸는가? -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 작품 관람기
- 28 어느 건축가의 흔적 - 김중업건축박물관 기증유물 기획전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 32 호남 제일의 관문, 전주

학술

- 36 2024년 학술상 금관상 수상 논문
 - 「武寧王陵 墓室 內 葬禮過程의 復原」
 - 매체로서의 금석과 18-19세기 소동파상: '건릉기유'명 월동본<소문충공유상>을 중심으로
 - 고려 후기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의 해석과 의미

박물관회 소식

- 42 국립중앙박물관회 50주년 기념식
- 44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사 발간
- 45 국립중앙박물관 의례실 조성 협약
- 46 2025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모
- 48 2024 기증유물 <황기로 초서>
- 49 기부회원 소개



『박물관사람들』
온라인으로 보기

국립중앙박물관회를 만든 박물관인 '최순우' 그리고 거울못 청자정



성북동 자택에서 최순우 선생, 해국최순우기념관 제공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의 문화재와 유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평생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 발굴에 헌신하였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키려는 그의 마음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국가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참여 의식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국립중앙박물관회를 발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이번 특집 기사에선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기증한 거울못 청자정의 '청자 기와'를 발굴한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이야기를 다룬다.



청자기와

1964년, 1965년 국립박물관의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호 가마터 일대 발굴 조사>에서 청자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다. 청자기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큰 사찰이나 궁궐 건축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전하는데, 흑빛의 일반기와와 달리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고려사』에서 “의종(毅宗) 11년(1157) 공원(宮苑)에 양이정(養怡亭)을 세우고 그 집을 청자로 이었다”는 기록에 남겨진 청자 기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최순우 전 관장(당시 박물관 미술과장)은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학예연구관과 함께 전남 강진으로 답사를 떠났다.



청자 넝쿨무늬 암막새



청자 수키와



청자 모란무늬 수막새



전남 강진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가마터

청자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부근을 다니던 중, 마을 사람들에게서 파편의 형태로 남은 청자 기와 조각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는 고려청자가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으로 여겨지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마을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청자파편들을 일본인과 도굴꾼들에게 값을 받고 팔기도 했다. 마을에서 조사를 계속하던 중,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파편이 다수 발견된다는 김월엽 씨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집 마당과 부역을 비롯한 집안 전체에서 청자 파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발굴 조사단을 꾸려 그 집 마당에서 청자 수키와, 암키와, 수막새 등 여러 청자 기와를 발굴해, 이 곳이 『고려사』속 '양이정'의 지붕에 놓인 청자 기와를 제작한 가마터임을 밝힐 수 있었다.

이후 이어진 몇 번의 발굴 작업에서 50여 점의 청자 기와 파편과 10여 점의 기와 원형(암막새, 수막새, 암키와, 수키와, 특수 기와 등)을 발굴했다. 가마터가 발견된 집(이용희 청자장(무형 문화재 제36호)의 집)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전남 강진을 중심으로 180여 개의 고려청자 가마터를 발견하였다. 1980년대까지 계속된 20여 년의 발굴 작업을 통해 최순우는 고려청자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비롯한 청자의 양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고려사』에 남은 짧은 기록 외에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청자 기와의 존재를 밝힌 이 연구는 청자 기와뿐만 아니라 당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고려청자의 제작 연대, 제작 방법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2009년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징물로 「고려사」를 통해 전해지던 양이정을 모티브로 거울못에 청자정을 건립하였다. 기념비적 연구의 의미와 최순우 전 관장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에 공감하여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도 YFM(Young Friends of Museum)을 중심으로 청자 기와를 기증하였다(해강도자 제작). 발굴된 청자 기와에서 보인 음각과 양각의 모란당초문, 당초문을 그대로 재현한 청자 기와는 ‘우후청천색(雨後晴天色)’, 담담한 푸른빛 비색(翡色)을 보이며 거울못 청자정 지붕에 놓여져 있다.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1996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2002
 이충렬.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김영사, 2012



특설강좌 47년, 강좌의 시작과 현재



조선일보_1981년 10월 6일_조상의 멋과 슬기 켤수록 새맛

1977년, '박물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박물관 특설강좌가 시작되었다. 고고학, 인류학, 박물관학, 미술사 등의 과목으로 강좌를 구성하여 수강생 40명 정원으로 모집하였지만, 뜻밖의 인기로 정원의 10배가 넘는 500여 명이 수강 신청하였다. 특설강좌가 시작하던 당시엔 수강 자격을 두고 서류 심사를 통해 합격한 사람들만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 1기생을 모집한 이때엔 강좌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200여 명을 뽑아 2개 반으로 나눠 강좌를 개강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강좌를 이관받아 관리를 시작한 해는 1981년이다. 5기생이 강좌를 수강 중이던 그때 한 언론에 실린 수강생들의 이야기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는 설렘이 여실히 묻어난다(“조상의 멋과 슬기 켤수록 새 맛”, <조선일보>, 1981. 10. 6.).

“우리 역사를 다시 새롭게 배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난하고 우수하지 못한 민족인 것처럼 잘못 생각해 온 것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사라졌어요. 조상들의 슬기와 의지가 새삼 대단스럽고요.

자녀들을 지도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큰 도움을 준 강좌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유산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눈이 떠지도록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를 사랑하자」 이같은 표어만이 아니라 휴일에는 가족 동반해서 역사 공부하러 다니면 자연스럽게 문화재 사랑은 이룩될 수 있다고 믿어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진행된 특설강좌는 출석만 해서는 수료할 수 없었다. 전 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했고, 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노트 검사에도 합격해야만 했다. 노트 필기가 충실한 수강생들은 ‘공책 우수상’을 수여하였다(“갈수록 뜨거워진 전통문화 열기”, <경향신문>, 1981. 12. 12.).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필기한 노트에서 당시 수강생의 열정이 느껴진다.

초기 특설강좌는 50개 내외의 강의 주제로 1년 동안 매주 운영되었다. 강의는 대학 교수, 혹은 전문 학자가 담당하였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명망이 높고, 깊은 연구를 이어가는 분들이었다. 특설강좌가 시작된 1977년, 당시 개설된 과목들과 담당 교수를 소개한다.

1977년 특설강좌 과목과 교수진

*소속은 출강 당시를 반영함

과목	이름(소속)
한국 복식사	김동욱(연세대)
한국 서지학	김두중(서지학자)
통일신라 조각사	김리나(홍익대)
중국 고고학	김병모(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서설 고구려시대	김원용(서울대)
한국 목조건축	김정기(문화재연구소)
동양 미학	김정록(서울대)
한국 민족	김정학(前 부산대)
서양미학, 예술론	백기수(서울대)
구석기시대	손보기(연세대)
중국 일본 미술개론, 한국회화사	안휘준(홍익대)
목칠공예	예용해(한국일보)
일본 고고학, 청동기 시대, 백제시대	윤무병(충남대)
한국의 불교	이기영(동국대)
박물관학	이난영(중앙박물관)
한국 민속학	이두현(서울대)
한국의 유학	이우성(성균관대)
보존과학	이태녕(서울대)
한국 서예사	임창순(태동고전문화연구소)
국악사	장사훈(서울대)
한국 과학사	전상운(성신여대)
한국 도자기와전 불교회화사	정양모(중앙박물관)
한국 도자기와전	정양모(중앙박물관)
한국의 부도	정영호(단국대)
신라시대, 한국 금속공예, 한국의 석조미술	진홍섭(이화여대)
한국미술사서설	최순우(중앙박물관)
한국 민예	최순우(중앙박물관)
신석기시대, 초기철기시대	한병삼(경주박물관)
인류학, 문화와 환경	한상복(서울대)
인도미술개론, 삼국시대 조각사 한국의 탐파, 인도미술 개론	황수영(동국대)



경향신문_1981년 12월 12일_갈수록 뜨거워진 전통문화 열기

특설강좌 신청날 박물관회 사무실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한다. 그날의 모습을 당시 강좌 수강생과 박물관회 직원은 이렇게 기억한다.

“..강좌 신청을 하려면 새벽부터 첫차를 타고 6시 전에는 박물관에 와야 했어요. 그 시간에도 이미 제 앞에 긴 줄을 서 있었지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특설강좌 수강을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박물관회 직원들도 신청일엔 비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선 줄을 보면 뿌듯하다가도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님을 섭외하는 일에 부담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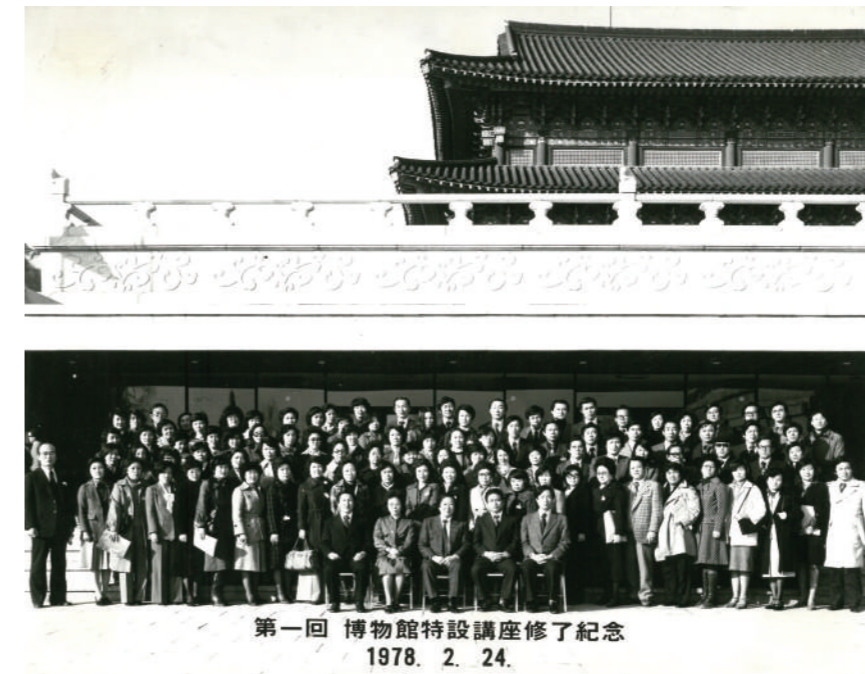


특설강좌 신청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앞

특설강좌 5기가 시작되던 1980년, 4기까지의 특설강좌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회(스터디 모임)를 결성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1기~4기 수강생들이 결성한 ‘박우회’를 시작으로, ‘전통 문화학습회’, ‘박연회’, ‘온고회’, ‘팔우회’ 등의 학습회가 운영되었다. 매월 2회씩 우리나라 전통문화, 역사와 예술에 관련된 학계 전문가들을 직접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고, 전국의 유적지와 박물관, 미술관 답사를 진행하였다. 박물관이나 박물관회의 기획 없이 우리 문화유산을 배우겠다는 회원들의 학습 열정만으로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었다.



박물관신문_1985년 3월 30일_박물관특설강좌 이수자들 그룹활동 활발히 전개



1978년 특설강좌 1기 수료기념 사진

학습회는 1996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되었다. 8개 학습회에서 각 50명~1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였고, 1997년 박물관회가 ‘연구반’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운영을 시작하며 지금의 ‘연구강좌’가 탄생하였다. 한국사, 동양사, 고고 인류, 미술사, 불교 미술, 사상사 6개 반으로 시작한 연구반은 2007년 세계 문화 과목을 추가하여 운영되다가 2021년, 8~9개의 더욱 구체화되고 다양해진 주제들로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 고적 답사 가이드 40년을 지나며...



박물관강좌는 강의실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흑한기와 흑서기를 제외하고 매달 진행되는 정기답사는 신청 시작 10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국의 유적과 유물을 찾아나서는 정기답사는 1975년 경북 경주 답사로 시작되어 2024년까지 49년째 진행 중이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40년째, '가이드'의 자리에서 정기답사를 이끌어온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직접 소회를 밝힌다.

격동의 1982년, 한국 경제가 도약 단계를 벗어나면서 개발 도상국의 이미지를 벗자마자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권을 얻거꾸 획득하였고 급기야 올림픽을 치르는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드디어 밤 12시 통행금지도 해제되었다. 격동의 바람은 문화계에도 불어닥쳐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국풍의 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 최고급 '지성의 명소'로 연일 인기 폭발이었다. '혹시 박물관 대학을 이수하셨나요?'라는 인사말이 대유행이었고 박물관 대학(특설강좌)의 입학은 매년 지원자 폭주로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다.

그중에서도 박물관 특설강좌의 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월 1회 셋째 일요일에 실시하는 '고적 답사'였다. 미성년자 동반 탑승 금지, 운행 중 설명 금지는 물론 차 안에서 오락, 식사,

오디오 송출 금지를 불문율로 정하여 그야말로 '청정답사'를 추구했다. 우리 고적 답사는 악천후나 천재지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당일 오전 7시 정각이면 인정사정없이 출발하는 '질문 사절'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3대 이상의 버스를 동원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렇듯 열정의 고적 답사가 매월 진행되던 1984년 4월 하순 어느 날, 그동안 가이드를 맡아오던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 당장 5월부터 새 가이드를 투입시켜야 했고, 이는 최소한 2주 이내에 해결을 봐야 다음 달 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관련 부서 담당 선생님은 백방으로 가이드 후보자를 수소문했다.

당시는 내가 대학원 동창과 함께 돌이서 박물관에 근무한 지 석 달도 안 되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답사 가이드를 수소문하던 선생님께 마침 입사 동기였던 친구가 나를 '답사꾼'이라 소개했다. 담당 선생님은 다짜고짜 날 찾아와 국내의 답사 당일 코스 20곳을 적어보라 하시고 그곳을 다 가보았느냐 확인하시더니 곧바로 박물관회에 날 소개하셨다. 영문도 모른 채 나는 그렇게 새내기 국립박물관 고적 답사 가이드가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가이드 급 수소문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박물관 답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



1986년 9월 14일 정산 정암사 답사

그렇게 시작한 나의 답사 가이드 인생은 1984년 5월 박물관 역사상 27세의 최연소 청춘 가이드로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박물관회 담당 직원은 단 두 명, 한 명은 업무 보조의 여직원이고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신병찬 국장님이었다. 나보다는 선배님이었지만 우리 둘은 모두 20대 청춘이었다. 우리 둘은 매달 3대 이상의 버스에 탑승한 회원을 인솔하였다. 그러나 어느 달은 4대 혹은 5대가 출발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84년 12월에는 1년도 안 된 풋내기 총각 가이드가 혼자서 버스 4대를 인솔하기도 하였다. 하필 답사일 전야에 최순우 관장님이 타계하여 20대 신병찬 국장님이 박물관회를 대표하여 조문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적 답사는 내 인생의 운명 같은 존재였다. 나는 연애보다 답사가 즐거웠다. 특히 새로운 답사지 발굴의 성취감은 실로 짜릿한 전율이었다.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은 절대로 답사지에 넣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 없는 곳은 반드시 미리 가서 확인을 하였다.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가 없었으므로 버스가 어느 지점까지지 접근하고 주차가 가능한지, 어느 지점에 점심 식사 장소가 있는지는 실무적인 진행상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다. 한번은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해 사전 답사를 다녀올 형편이 안 되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신병찬 국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두말없이 흔쾌히 사전 답사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박물관 고적 답사는 월례 답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년 2회 실시하는 수강생 고적 답사도 있었고,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장거리 답사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 모임에서는 자체 답사를 계획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머나먼 흑산도까지 답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 특히 2박 3일 장거리 답사에서는 미리 인사동에 가서 백지 합죽선을 다수 구매하여 답사 현장에서 유적 풍경을 붓으로 부채에 그려 퀴즈를 맞추신 분, 최다 참석한 분, 최고령자분들께 상품으로 드리기도 하였다. 답사 중 비가 오는 날은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회원님들의 기분 전환을 부추겨 드렸던 추억도 생각한다.

그러던 중 1987년, 나는 청주박물관으로 발령을 받아 6년 반을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찬 국장님은 내게 가이드를 계속 권유하였다. 나는 매달 답사 하루 전날 서울에 올라와 신 국장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다음날 답사에 참여한 후 청주로 내려갔다. 그 6년 반의 긴 세월 동안 신국장님 내외분은 언제나 날 극진히 대접해 주셨기에 나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 국장님은 해외 답사에도 배려를 하여 일본과 스리랑카 답사에 동행할 수 있었다.



1987년, 신국장님과 함께(영월 청령포)

그렇게 10년, 20년.. 아름다운 세월이 흘러갔는데 결국 2005년 1월, 나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니 자연히 답사와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회원님들의 열화 같은 요청으로 나를 불러 다시 박물관 답사에 복귀하였다. 그 후 나는 경주, 대전, 심지어 목포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회와 쌓인 정과 의리를 생각하여 서울에서 실시하는 답사를 저버리지 않았다. 박물관회에서도 나의 답사 가이드 30주년이 되던 2014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고급스런 가죽 트레킹 운동화를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그 운동화는 바닥을 두 번이나 갈고 등가죽을 여섯 군데나 꿰맸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매번 이 신발을 애용하고 있으며 다음 답사에도 변함없이 신고 나갈 것이다.



10년동안 신어온 운동화



2019년 7월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2010년 10월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앞에서

꿈같은 세월 속에 27살 청춘 가이드는 이제 67세의 올드맨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동안 40년 가이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녕 단 한 번도 혼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언제나 국내 최고의 답사 가이드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언젠든 유적 하나라도 더 안내해 드리고 가능하면 늦게 돌아오려 애쓴 점은 스텝들이나 운전 기사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답사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전혀 서운함이 없는 내 인생의 순수하고 한없는 사랑과 정열 그 자체였다. 하늘이 내려 주신 나의 숙명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40년 경력이라도 부족함과 실수가 왜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너그러이 이해하고 환대하여 주신 박물관 회원님들과 국립중앙박물관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더 유능하고 젊은 후임 가이드가 등장하여 박물관 답사를 더욱 다채롭게 빛내주시기를 바란다.

자원봉사는 '즐거움' 이에요

최경자 회원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원봉사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엔 박물관강좌의 특설강좌를 수료하고, 연구강좌를 3년간 수강한 회원들에 한해 전시장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우리 문화 전반을 다루는 특설강좌를 수료하였다면 관련 기초지식을 이미 습득하였다고 본 것이다. 1992년부터 박물관 전시 도슨트 봉사, 박물관강좌 교육지원봉사로 꾸준히 활동해온 최경자 회원을 만나본다.



Q1.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도슨트와 국립중앙박물관회 교육 지원 봉사를 하는 최경자입니다.

Q2. 박물관 자원봉사는 박물관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에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박물관강좌를 알게 되셨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대학 동창이 박물관회 직원분과 가까이 살았어요.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박물관강좌(당시 '박물관대학')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엔 '박물관대학'이었는데, 처음엔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이 해외에 나갈 때 우리나라 역사나 유물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역사나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들에게 수강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엘리트로 생각이 되곤 했지요.

제가 자원봉사를 시작할 당시엔 박물관대학 특설강좌를 수료하고, 연구강좌를 3년 이상 수강해야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정양모 관장님께서 도자기 유물을 복원하는 역할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활동 시간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모집하던 전시실 자원봉사자에 지원했어요. 그게 1997년이었어요. 박물관강좌 자원봉사는 『박물관사람들』 창간호 편집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Q3. 현재 박물관강좌 교육 지원 봉사, 박물관 기획전시실 도슨트 봉사 두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교육 지원 봉사는 박물관강좌가 시작될 때 수강생들 출석 체크와 강좌 안내, 강의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올해는 연초 진행했던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특강과 연구강좌 '그리스 역사와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두 개 강좌를 맡았어요.

도슨트 봉사는 기획전시실에 새 전시가 시작될 때마다 전시를 소개하고 전시된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지요. 교육 지원 봉사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도슨트 봉사는 준비할 것이 꽤 많아요. 보통 한 전시에 200점 내외의 적지 않은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이걸 1시간 안에 소개하는 스크립트를 쓰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동료 봉사자들과 학예사들 앞에서 시연을 해요. 이때가 참 긴장되지요. 떨려서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만약 1차 시연에서 잘 해내지 못하면 2차 시연을 하는데, 이때는 1차보다 더 떨리고 가끔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전시실 도슨트 봉사를 한 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꼭 참고 계속 해온 게 여기까지 왔어요.

Q4.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뿌듯하거나 즐거웠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궁금합니다.

박물관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강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세요. 워낙 열의가 넘쳐서 강좌를 맡은 교수님들께서 오히려 놀랄 정도예요. 그 마음이 넘쳐서 무리한 부탁을 하실 때 조금 난감하죠. 강의실 자리를 두고 다투시는 경우도 있고, 수강하지 않는 강좌의 강의 자료를 과하게 요구할 때도 있었어요.

전시실 도슨트를 하면 제가 설명했던 작품들은 머릿속에 오롯이 남아요. 해외여행을 나가 미술관에 가서 그 유물들이나 그림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예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에서 다뤘던 작품을 만나니 순간 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Q5. 활동하신 봉사 시간들을 모두 더하니 약 3,0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박물관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외로 아주 대단한 보상이 아닌 작은 순간들 덕분이에요. 한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전시 설명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 전시 설명 듣느라 힘들지 않았어요?"라고 물으니, 한 학생이 "설명 다 외우신 게 대단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 칭찬이 기억에 남고, 전시 설명이 끝날 때마다 관람객들의 크고 작은 박수 소리. 그걸로 제 설명이 '그렇게 듣기 싫진 않았나 보다. 괜찮았나 보다.'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죠. 3,000시간을 넘게 봉사를 하니까 구청에서 '봉사랑' 상을 주더라고요.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희 봉사자들 대상으로 감사장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마담X의 초상, 2022, 최경자

30대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을 박물관에서 봉사했어요. 함께 시작한 분들은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활동 중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박물관에 나와서 관람객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 외출을 준비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워요. 봉사는 '즐거움'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봉사자들끼리는 몸이 아파서 못할 때까지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은 것'이 참 많아요. 저는 '얻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강좌 지원 봉사를 하다 보니 지식과 교양도 쌓을 수 있었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생활처럼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니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에 여의도 복직 회관에서 그림 스케치 모임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그림이 벌써 7년째예요. 공모전에서 여러 번 입선하고 작년엔 개인전도 열었어요. 박물관에서 '작품'들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로도 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물관은 저를 거듭나게 해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5 박물관강좌 프로그램 안내

49기 특설강좌

2025년 49기 특설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회 50주년을 맞아 세계사반, 한국사반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개편하였다. 강의는 각각 33회 강의로 구성하였으며, 수료 후(출석률 60% 이상)엔 연구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 기간: 2025년 3월~12월
- 시간: 매주 1회 14시~17시(3시간, 7~8월 방학)
- 모집: 2025년 1월부터(한 반을 선택해 수강 가능. 두 개 반 모두 수강도 가능함)
- 수강료: 66만원(일반회원) / 61만원(특별, 기부회원)

세계사반(화)			한국사반(목)		
회차	주제	교수	주제	교수	
1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강좌 소개)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강좌 소개)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2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사란 무엇인가	최호근(고려대)	역사란 무엇인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윤선태(동국대)	
3	인류 문명의 발생 I	유성환(서울대)	한반도와 만주의 선사시대	이한용(전국리선사박물관)	
4	인류 문명의 발생 II		고대의 역사: 한반도와 만주의 초기국가들, 국가의 형성과 발전	윤선태(동국대)	
5	서양 역사와 문화: 폴리스, 헬레니즘 문화	반기현(육군사관학교)	고대의 역사: 삼국의 경쟁과 삼한의 통일전쟁	이한상(대전대)	
6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1		고대의 예술 I: 삼국의 금속공예 1		
7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2		고대의 예술 II: 삼국의 금속공예 2		
8	전시연계: 고대 그리스 로마실		전시연계: 선사-고대관-구석기~신라실 가야실		
9	중국 역사와 문화: 주, 춘추전국, 진	이성원(전남대)	남북국시대의 역사: 발해의 역사와 예술	윤재운(대구대)	
10	중국 역사와 문화: 한, 위진남북조		남북국시대의 역사: 신라 중대-하대	박성현(서울대)	
11	중국 역사와 문화: 수, 당		남북국시대의 예술: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1	배재호(용인대)	
12	동남아시아사	조흥국(부산대)	남북국시대의 예술: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2		
13	인도사	이광수(부산외대)	전시연계: 선사-고대관-통일신라실, 발해실 신라실, 통일신라실, 발해실		
14	전시연계: 인도-동남아시아실		고려시대의 역사 I	박재우(성균관대)	
15	일본 역사와 문화: 고대	홍성화(건국대)	고려시대의 역사 II		
16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고려시대의 역사 III		
17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에도 막부)		고려시대의 예술: 도자기(청자)	장남원(이화여대)	
18	전시연계: 일본실		전시연계: 중-근세관-고려실		
19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손영훈(한국외대)	고려시대의 예술: 고려미술, 불교미술-불화	김정희(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20	전시연계: 중앙아시아실		고려시대의 예술: 불교미술-조각, 불상, 탑	최선주(중앙대)	
21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형성	박용진(서울대)	전시연계: 도자공예관-불교조각, 금속공예 등		
22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전성기와 문화		조선시대의 역사 I	한명기(명지대)	
23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변동		조선시대의 역사 II		
24	서양 역사와 문화: 대항해시대와 상업혁명	임승휘(선문대)	조선시대 예술: 필담록을 통해 본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김호(서울대)	
25	서양 역사와 문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조선시대 예술: 회화(초상화, 인물화, 풍속화)	조인수(한예중)	
26	서양 역사와 문화: Modern과 Nation의 발명		전시연계: 서화관-회화실		
27	중국 역사와 문화: 송	홍승태(경희대)	조선시대의 역사 III	한명기(명지대)	
28	중국 역사와 문화: 원, 명	조영현(고려대)	조선시대의 역사 IV		
29	중국 역사와 문화: 명, 청		조선시대의 예술: 궁궐 건축, 궁궐도		정병모(前경주대)
30	전시연계: 중국실		전시연계: 중-근세관-조선실		
31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 I	박현도(서강대)	조선시대의 예술: 공예(목공예-칠기, 화각 등)	박영규(용인대)	
32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 II		조선시대의 예술: 도자기(백자, 분청사기)	전승창(APMA)	
33	전시연계: 이슬람실		전시연계: 도자공예관/서화관		

연구강좌

연구강좌는 격주로 15회 진행되며, 여러 강의를 함께 수강할 수 있다. 강좌별 세부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2025박물관강좌 프로그램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간: 2025년 3월~12월
- 시간: 격주로 진행. 화·수·목 오전, 오후 *모든 연구강좌의 강의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 모집: 2025년 1월부터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료: 39만원(일반회원) / 34만원(특별, 기부회원)



2025 박물관강좌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회 홈페이지
'새소식'에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1	시·서·화(詩書畫): 글이 있는 그림	격주 화요일 10~12시	류승민(국가유산청)
	과거 동아시아의 문예는 문학과 미술, 음악의 조화이었다. 이 중에 미술은 글씨(서예)와 회화가 중추를 이루었다. 조선의 서화는 중국·일본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특수한 영역을 형성하며 성장했다. 수량으로는 이웃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으나 걸출한 작가들이 다수를 대적할 만했다. 이 강의에서는 일당백의 조선 서화가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그들이 이룬 예술적 성취의 가치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2	동아시아의 사원과 불교미술	격주 화요일 14~16시	최선주(중앙대)
	동아시아의 사원과 불교미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을 이해해 볼 것이다. 동아시아의 고대 불교사원과 가람 배치에서부터 중국의 석굴사원 및 사찰,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사찰과 불상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3	문명의 바다, 지중해	격주 화요일 10~12시	남중국(이화여대)
	이 강의의 목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명과 역사적 사건들을 탐구하는 데 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지중해의 지리적 환경, 고대 문명, 로마 제국과 기독교,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문명, 십자군 전쟁, 그리고 몽골 평화 시대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중해를 조망한다. 지중해가 문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강의의 주요 목표이다.		
4	중국현대미술사	격주 화요일 14~16시	정하윤(미술사가)
	청나라 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중국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과 미술가들을 짚고, 대표 작품을 시대사회적 배경 안에서 해석한다. 강좌를 통해 중국의 미술에서 나아가 역사,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건축의 노벨상: 프리츠크상 수상자 30인	격주 수요일 10~12시	정태종(단국대)
	'프리츠크 건축상'은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현존하는 건축 분야의 상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수상자들의 건축물과 건축 가치관을 살펴본다. 서로 연관성을 가진 수상자들을 분류하여 다룬다.		
6	일본사개론	격주 수요일 10~12시	정순일(고려대), 박상현(건국대)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이웃한 나라인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의 특징과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일본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정확한 과거 인식에 바탕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일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한다.		
7	전쟁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격주 목요일 10~12시	홍용진(고려대), 류한수(상명대)
	역사에서 전쟁은 갈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개인은 물론 크고 작은 공동체의 생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전쟁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왔다. 따라서 단순히 승패를 위한 전략이나 전술을 뛰어넘어 전쟁과 사회가 빚어낸 다층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강좌는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의 특성과 그것이 유럽사회와 맺은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8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격주 목요일 10~12시	우석균(서울대), 임소라(한국외대)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아메리카를 동질적인 특징을 지닌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언어, 역사, 문화, 종교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는 무려 33개 국가와 1개의 준국가로, 지리, 기후, 인종, 발전 정도, 정치 체제 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 강좌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총론은 물론 국가별 특징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테마강좌

테마강좌는 특설, 연구강좌와 차별화하여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좌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 12회 진행하며, 강좌별 세부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2025 박물관강좌 프로그램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간: 2025년 3월~12월
- 시간: 매주 진행. 수·목 오전, 오후
*하나의 주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강의합니다.
- 모집: 2025년 1월부터
- 수강료: 35만원(일반회원) / 30만원(특별, 기부회원)

1	유럽의 박물관·미술관 산책: 오스트리아	상반기 매주 수요일 14~16시	이 현(미술사가)
2	유럽의 박물관·미술관 산책: 네덜란드	하반기 매주 수요일 14~16시	
유럽 각국의 주요 미술관의 역사와 소장품, 최근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상반기엔 오스트리아, 하반기엔 네덜란드 전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살펴본다.			
3	고전강독: 손자병법	상반기 매주 목요일 10~12시	진성수(전북대)
4	고전강독: 사기열전	하반기 매주 목요일 10~12시	
동양고전 강독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고전 속 현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과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 상반기엔 손자병법, 하반기엔 사기열전을 다룬다.			

특강

특강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5~8회 진행하는 강좌이다.

강좌별 세부일정과 수강료는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2025 박물관강좌 프로그램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간: 2025년 1월~12월
- 시간: 매주 진행. 화·수·목 오전, 오후
- 모집: 2025년 1월부터
- 수강료: 강의별 상이

1	의례실 조성 기념 특강: 조선 기록 문화의 꽃, 외규장각 의례	1~2월 매주 화요일 14~16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후원하여 조성한 '외규장각 의례실' 공개 기념 특강으로,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의례를 살펴본다.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에 반출되었다가 2011년,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례의 역사와 특징, 오례와 왕실 사업을 주제로 한 개별 의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한다.			
2	왕과 권력과 인간 II	1~2월 매주 수요일 14~16시	한명기(명지대)
본 강의는 작년에 이어 병자호란 이후 조선 왕들의 즉위 과정과 각 왕들이 재위 기간 동안 드러낸 남긴 업적, 통치자로서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보였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같은 시기 중국의 황제나 일본 장군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교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인물로 보는 조선시대사'라고 할 수 있는 본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보다 생생한 조선시대의 歷史像을 확인하고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성찰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3	과학과 인간의 역사	4~5월 매주 화요일 10~12시	남 영(한양대)
16~17세기의 과학혁명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학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며 현대사회를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해 본다.			
4	목공예의 발견	4~5월 매주 목요일 10~12시	박영규(용인대)
· 조선 시대 미술품 중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 백자, 분청사기 그리고 목공예품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목공예품은 천연 목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예 재료에 비해 널리 손쉽게 사용되고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 고려 나전칠기는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세밀하고 높은 제작 기술로 이루어져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희귀성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 이러한 목공예와 칠공예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이론과 함께 많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5	서양의 고전, 인간을 그리다	10~12월 매주 화요일 14~16시	권오숙(한국외대)
연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인류에게 제공해왔다. 21세기까지 연극의 낯설게 하기 기법은 현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려내어 사람들의 각성을 이끌어 냈다. 그 중에서도 각 시대별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그 작품들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통찰하고, 세상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			
6	도시로 읽는 일본의 역사	11~12월 매주 수요일 10~12시	박진한(인천대)
고대 도성제에 따라 만들어진 나라(奈良)와 교토(京都), 무사 지배의 거점 도시인 가마쿠라(鎌倉), 오사카(大坂), 도쿄(東京)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발상지인 가고시마(鹿児島)를 주인공 삼아 일본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유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한영민 회원



국립중앙박물관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엔 발굴한 유물들의 조각을 맞추어 있고 분류하는 ‘유물 정리 자원봉사자’도 있다. 1999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 정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한영민 회원을 만나보았다.

Q1.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과거 고고부)에서 유물 정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999년 봄 박물관 대학(현재 박물관강좌)에서 연구강좌를 수강하고 있던 중, 교육관 벽면에 ‘박물관대학의 강좌를 3년 이상 수강한 회원 중 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현재 고고역사부)의 발굴 유물 복원과 유물 정리 등의 작업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원봉사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박물관대학(현재 박물관강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박물관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초기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국분이 워싱턴주 청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 가꾸는 봉사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중이라, 국립중앙박물관회(과거 한국박물관회) 사무실에서 박물관의 유물 정리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봉사 조건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한 달에는 적어도 열 번 이상을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책임감도 따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지만, 선조들께서 남기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물들을 가능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정리하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물 정리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고고부 작업실에 들어가 처음 시작한 작업은,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발굴한 후 세척해 놓은 토기 조각 등의 안쪽 면에 출토된 위치를 나타내는 표기 작업(numbering)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맞는 토기 조각들은 정확하게 붙이는 복원 작업을 동시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서로 딱 맞는 토기 편(片)들을 찾게 되었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바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학예사분들과 전문 직원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복원하는 기술을 잘 배우게 되어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학예사 자격증도 취득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3. 1999년부터 ‘유물 정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면서 담당하셨던 역할, 참여하셨던 복원 작업들을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로 ‘발굴 유물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발굴했던 유물을 세척하거나 표기 작업인 numbering, 발굴 유물의 편들을 완형(完形)으로 복원하고 조각이 모자라는 곳은 복원제로 복원한 후 채색하는 coloring, 유물의 실측이나 탁본, 사진 정리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2004년부터는 용산으로 출근하며 재개관 준비를 도와주었고,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한 유물의 복원 작업들과 고고역사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의 정리 등 다양한 박물관 자료들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관을 용산으로 이전해 재개관하게 되었어요. 새로 지어진 박물관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많은 새로운 유물들을 전시하여 한층 박물관의 위상을 빛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작업으로 <겨레와 함께한 쌀>, <몽골 유적 조사 5년>, <낙랑>,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대외 교류>, <발굴에서 전시까지>, <영혼의 여정> 등의 특별전 작업 지원과 [봉산 양동리 전실묘], [창원 다호리 유적], [법천리 II], [법천리 III], [법천리 IV], [동삼동 패총 I], [동삼동 패총 II], [동삼동 패총 III], [울릉도], [다호리], [조도 패총], [암사동], [왕진리] 3호, 4호 등의 발굴 보고서 작업 지원을 하였고, 그 외에 [고려 동경]의 보고서 발간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복원 유물로 경주 서봉총을 재발굴했을 때의 일이에요. 출토되었으나, 출토된 토기편(土器片)들이 적어 복원하던 중 접합되는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해 복원을 거의 포기하고 지냈었죠. 한 달쯤 지난 후 극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토기편을 찾게 되어 힘들게 복원했던 대호(大壺)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4년 특별전 <영혼의 여정>에 전시된 토우 부착 토기(의례, 절, 악기, 지팡이)



2024년 특별전 <영혼의 여정>에 전시된 황남동 토우 장경호

그리고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5월 경동선 경주역 개축 공사로 황남동 일대에서 흙을 채취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소형 고분의 제사 유적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토우가 달린 토기들이 있습니다. 황남동 출토 토우 부착 토기들은 고고역사부 유물 정리 자원봉사자들이 2015년부터 4년여 간 복원과 정리 작업을 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영혼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토기들은 크기가 대체로 작고 부러지고 떨어져 없어진 편들이 너무 많아, 맞는 편을 찾으려면 토기 편들을 펼쳐놓은 큰 작업대 5곳을 계속 살펴봐야 했습니다.

한참 복원 중이던 2016년 4월, 토기와 도자기를 공부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도자기를 찾아서’ 회원들과 경주·김해 등의 지역으로 답사 여행을 하던 중,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황남대 총에서 발굴되었던 인상적인 얼굴 표정을 한 토우 장식이 달린 토기가 독립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복원하던 유물 중 정리 안되고 남아 있던 큰 상자에서 그 유물과 같은 개체로 보이는 토기 편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자세한 검증은 거쳐야 하겠지만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 부착 토기들이 “황남대총 주인 공들의 영원한 삶을 위한 제사 유적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지고, 한 개체로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4. 유물 복원 작업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긴 시간과 많은 체력을 요하는 작업에 ‘자원봉사자’로서 오랜 시간 참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물 복원 작업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전의 문화 유물들을 직접 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물을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유물 복원 작업은 각각의 유물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전승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봉사 활동과, 박물관회의 여러 교육 과정과, 자원봉사자분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 시간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Q5. 박물관회의 강좌도 오랜 시간 수강하셨습니다. 강좌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유물 복원 작업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봉사 활동과 수강하신 강좌의 연결 고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박물관회의 강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물 복원 작업의 대상이 우리 선조님들의 문화유산인 것을 생각해 보면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러한 유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선조들의 생활이나 정신 세계 등을 알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에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물의 복원과 정리 등의 작업에 도움이 될 도자사나 회화사 같은 미술 강좌와 고고학과 한국사, 세계 문화와 동양 문화 등의 연구강좌를 꾸준히 수강하였고, 국내·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기본적인 박물관 교육 등의 강좌도 학습하였습니다. 문화 유물을 실물로 볼 기회가 있으면,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회도 자주 다니고, 박물관회에서 해외 답사로 일본의 에도 동경박물관과 동경 국립박물관, 교토 국립박물관, 이총(耳塚)과 오사가 동양도자미술관 등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토기나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박물관회의 이러한 교육강좌가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6. 복원에 참여하신 유물들을 전시장에서 만나는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복원에 참여한 유물뿐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 관람객분들에게 전시되는 유물들은, 원형 그대로이거나 또는 다양한 복원 과정을 거친 것들 등 각각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물은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로 현재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유지·보수·보관되어, 지금의 관람객 분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유산을 전시장에서 감상하시며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접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관람객분들 모두가 함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테르 브뤼헬, 바벨탑, 1563년, 참나무 패널 위에 유채, 114×155cm, 빈 미술사 박물관

브뤼헬은 왜 바벨탑을 그렸는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 작품 관람기

최금희 회원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1525년경~1569년)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일대의 예술가였다. 그는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풍경화와 환상적이고 다의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 전해지는 브뤼헬의 작품은 45점이며, 그의 후손도 15명이나 화가였다. 그는 15세기와 17세기의 미술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빈 미술사 박물관 사진(빈 미술사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브뤼헬의 작품 12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전시관이다)

브뤼헬은 바벨탑을 세 번 그렸으나, 현재 두 작품만 전해진다. 하나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1563년작 <바벨탑>이다. 다른 하나는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판빙언 디포(Depot Boijmans Van Beuningen)에 있는 <바벨탑>으로 그로부터 5년 뒤쯤 그린 것이다. 브뤼헬은 종교적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종교 개혁의 시기에 태어나 종교적 충돌과 반목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에 성장했다.

브뤼헬의 <바벨탑>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통찰과 풍자가 강하게 나타난다. 7층 규모로 구름이 중간에 걸쳐져 굉장히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일층이 완공되기도 전에 전층이 함께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빈 미술사 박물관 <바벨탑>은 내부가 붉은색이고 외부는 노란색이다. 평소 브뤼헬이 즐겨 사용하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그려져서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나 로테르담의 바벨탑은 건물의 일부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빈 미술사 박물관의 것처럼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배경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와 폭풍전야의 고요와 긴장이 느껴진다.



빈 미술사 박물관 <바벨탑>에는 신(新) 바빌로니아 나부쿠두리우푸르 2세 일행과 석공들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이후 작품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숲에서 벌목하는 일꾼들로 바뀌었다.

바벨탑은 나선형의 통로가 감아 올라가는 방사선 구조이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알팍한 지식에 대한 브뤼헬의 경고이며, 그 지식에 의존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바벨탑 이야기는 성서와 유대교의 랍비 문학인 '아가다(Aggadah)'에 나온다. 나부쿠두리우푸르 2세(재위 기원전 604~기원전 562)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자만심과 폭정으로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도록 내몰았다.

왼쪽 하단에 왕관을 쓰고 망토를 한 나부쿠두리우푸르 2세가 공사 현장을 찾았다. 성서에 '느브갓네살'로 기록된 그는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길 원했으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분산시켰고, 이후 탑 공사는 중단되었다.



빈 미술사 박물관 <바벨탑> 부분

바벨탑을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에 그려 넣은 것도 바벨탑의 어리석음이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브뤼헬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플랑드르는 스페인의 속국이었다. 가장 큰 무역항인 안트베르펜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합스부르크가 출신이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가는 브뤼헬의 해학과 풍자의 깊이를 인정해 그의 작품을 소장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은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나부쿠두리우푸르 2세의 공격을 받았다. 성지는 폐허가 됐고 수많은 성물(聖物)이 정복자에 의해 약탈되었다. 이때 유대인 수천 명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바빌론 유수(Babylonian Captivity; 幽囚)'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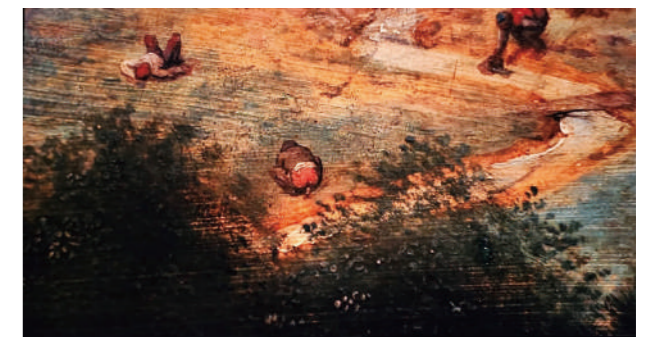
제왕은 약탈한 물자로 인구 15만이 사는 최고의 도시 바빌론을 건설하며 탑을 세웠다. 평지만 보고 살던 유목 민족이 바벨탑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구름 위로 치솟은 탑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길 같았다. 이들의 목적담은 훗날 성서에 영향을 주며,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바벨탑은 무지한 민중을 경고하기 위한 기독교 회화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바벨탑은 화가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되었지만, 대체로 원추형이었다.

그렇다면 브뤼헬은 왜 바벨탑을 그렸을까? 당시 플랑드르는 대외적으로 강압적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 맞서 80년 전쟁(1568~1648)인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그의 말년에 벌어졌다. 또 내부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 민중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이런 상황은 브뤼헬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브뤼헬은 1552년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보았고 바벨탑에 그 형상을 차용했다. 바벨탑은 신 바빌로니아나 로마처럼 스페인 제국도 멸망하리라는 걸 경고하는 메타포다. 신의 심판이 다가오리라는 경고처럼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바벨탑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브뤼헬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없애라고 유언을 했다.

브뤼헬이 그린 일상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세계로 현대 화가들처럼 결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다. 바벨탑에서 가장 작은 인물로 그려져서 잘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물가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이다. 그 옆에는 팔베개를 하고 쉬는 이, 그리고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다.



빈 미술사 박물관 <바벨탑> 부분: 물가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

브뤼헬은 엄숙주의로 포장하지 않았다. 작은 화폭에 많은 대상과 인물을 그려 '군집회화(群集繪畵)'라는 새로운 장르도 탄생시킨 브뤼헬은 16세기 플랑드르 최고의 화가였다. 15세기의 반 에이크 형제와 더불어 17세기 네덜란드의 회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한동안 조명받지 못했지만, 그의 그림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건넨다. 브뤼헬이 바벨탑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삶이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유효할 것이다.

‘어느 건축가의 흔적’

김중업건축박물관 기증유물 기획展

정재은(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학예팀장)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옛 대사집무실(現 주한 프랑스대사관 김중업관) 건축 부재를 활용하여 <어느 건축가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야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1922~1988>의 대표 작품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원형 부재를 활용한 것으로 신축 공사로 인해 철거된 대사집무실의 일부기둥, 바닥 마감재, PC 패널 등 총 43점의 건축 부재를 보존하여, 전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축가 김중업은 세계 근대 건축의 거장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 그의 아틀리에에서 함께 보낸 파리 체류 기간(1952년 10월 25일~1955년 12월 25일)은 그가 건축가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중업은 건축을 단순한 공간의 형태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로 인식하며, 다양한 건축 작품을 통해 한국에 예술로서의 건축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 공간에서 획일화된 형식이 아닌 아름다움의 조형성을 강조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꿈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귀국 이후 설계하고, 준공한 건축 작품들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건축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 현대 건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김중업이 파리에서 돌아온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의 내면은 항상 예술적 상상력으로 가득차 있었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시인, 작가, 화가, 건축가 등 다양한 예술가의 형태로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한 민족의 뚜렷한 심볼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그가 지닌 건축적 언어의 모든 요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 김중업이 집필한 <金重業,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1984/열화당>의 앞면 표지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대사 집무실(現 주한 프랑스대사관 김중업관) 건물의 지붕 처마 선이 담겨 있어, 그가 이 작품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열이 담긴 것을 꾸미려고 애썼고, 프랑스다운 엘레강스를 나타내려고 한 피눈물 나는 작업”이라 회고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길잡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주한 프랑스대사관저 사진, 31.1×21.8cm, ©김중업건축박물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건축가 김중업이 르코르뷔지에 아틀리에에서 경험한 서구 건축을 한국에 도입한 작품이다. 이 건물은 1959년 설계안이 당선된 후 1962년에 완공되었으며, 대사관저, 대사집무실, 영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배치에 따라 경사진 대지 위에 균형 있게 세워졌으며, 다리를 활용하여 건물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사 집무실 건물의 지붕 처마선은 한옥 기와 지붕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대사관저 지붕의 직선 형태와 시각적 균형을 이룬다. 특히 대사집무실은 날렵한 지붕 처마와 세련된 필로티 구조가 조화를 이루며 건축을 예술의 범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이 건축물은 한국 전통 건축을 재해석한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196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건축수첩, 15.6×9.2cm, ©김중업건축박물관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1965, 6.1×12.6×2.5cm, ©김중업건축박물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0년대 크고 작은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변형이 일어났다. 이후 증·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본모습을 잃어버려, 사라질 위기도 있었다. 2016년에는 대사집무실과 영빈관 건물의 증축과 복구가 결정되었으나,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변형이 많이 일어나 결국 신축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정말 좋은 건축은 몇 백 년이고 몇 천 년이고 오래 남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의 바람처럼, 건축가 김중업이 타계한 이후 오히려 한국 건축계가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신축 설계 역시 그의 원형 설계를 오마주하여 재탄생하였다.



포트폴리오, ©김중업건축박물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김중업관, 2023

2018년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신축 계획에 따라 집무실 철거가 결정되자, 김중업건축박물관은 2022년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건축 부재의 기증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총 43점의 건축 부재를 기증받았다. 기증 대상 부재는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내부의 ‘+’기둥, 건물의 골조를 보여주는 ‘ㄱ’자 기둥과 ‘—’자 기둥, 슬라브 끝을 형성하는 테두리 보, 외벽 마감재 PC 패널, ‘+’기둥을 절단한 오브제, 그리고 다양한 바닥 마감재 등이 포함되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기증 대상 유물 확인

주한 프랑스대사관 철거 기둥 부재 위치

김중업건축박물관은 2023년 기증받은 부재들을 박물관 야외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였다. 전시 구성은 옛 주한 프랑스대사관 대사집무실의 질서 정연한 구조 모듈을 오마주하여, 기증받은 네 개의 기둥 부재를 정사각형 형태에 따라 배치하였다. PC 패널은 원래 대사집무실 외벽과 유사한 조건으로 벽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둥을 절단한 오브제는 관람객이 앉아 쉴 수 있는 스톨(의자)로 제작하여 데크에 배치하였다.



‘어느 건축가의 흔적’ 야외전시 전경, 2023, ©김중업건축박물관

<어느 건축가의 흔적> 전시에서는 2023년 김중업이 설계한 원형 디자인을 오마주하여 ‘김중업관’으로 재개관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상징적인 연결성을 위해, 해당 공간의 바닥을 같은 종류의 데크로 마감하였다. 이는 원형 건축 부재를 철거 후 재축하였지만, 김중업이 처음 설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 보존의 의미를 폭넓게 구현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전시 공간에 배치된 건축 부재들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물 보존 처리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은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또한 건축부재 한쪽에는 파빌리온 공간을 마련하여 현대 건축 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전시하였다.



‘어느 건축가의 흔적’ 건축부재 보존처리

김중업은 “건축은 그 시대의 삶의 표정을 그 나라의 문화 역량을 담아낸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박물관 부지 내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중초사지 삼층석탑(시도유형문화유산), 안양사지(시도기념물) 등 고대 건축물의 흔적과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의 흔적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그가 말한 건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3D VR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생생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전경, ©김중업건축박물관



‘어느 건축가의 흔적’ 포스터

이번 <어느 건축가의 흔적> 전시는 건축 부재의 원형을 주제로 한 기증 전시다. 앞으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사라져가는 김중업 건축 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김중업 사진, 1957,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주 시가지 전경(경기전), 전주시 제공

호남 제일의 관문, 전주 **全州**

소재구(전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호서 지방을 지나 호남의 땅으로 들어서면 서해 바다를 접한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다. 그리고 이곳에는 예로부터 삼형제 고을이 사이좋게 줄지어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군산, 익산, 전주다. 이미 삼한 시대에 마한(馬韓)에 속하였던 이 세 고을 중에서도 서해 바다에 접한 군산 지역이 가장 먼저 터를 잡았고 이후 약간 내륙으로 들어선 익산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지역의 고분 분포를 보면 시기적으로 군산과 금강 하류 지역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익산이다. 그 후 익산은 미륵사지와 선화 공주의 전설을 간직한 채 백제 문화의 꽃을 피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 역사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백제 멸망 후 익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익산에서 약간 서남향으로 이웃한 또 다른 고을이 부상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전주다. 전주는 군산과 익산의 평지 고을과는 달리 노령산맥의 산자락이 고을의 동, 남, 북방을 에워싼 반달 같은 안온한 분지에 자리한 채 서편으로는 널따란 호남평야와 연결되어 있어 산야(山野)의 물산이 모이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서 서서히 커다란 고을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렇듯 호남의 막내 고을로 등장한 전주는 오히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을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전주'라는 지명을 얻어 전남의 무진주(武珍州, 광주)와 더불어 전국 9대 고을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또한 후삼국기에는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호남 전체를 '전라도'라 부르며 전주와 나주를 대표 고을로 삼았다. 조선 시대에는 전라도 전체는 물론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대규모 행정 도시인 '전주부'가 되어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여 오늘날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특히 전주는 조선 시대에 들어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며 전주 이씨의 본향으로 왕실의 각별한 대접을 받은 곳이었다. 이성계의 할아버지였던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는 고려 시대 말기의 무관으로 20대 초반까지 전주에서 살았다. 당시 이 지역의 한 기생을 좋아했는데 이 여인 문제로 고을 별감과 치정 관계가 발생하여 오히려 이안사는 투옥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알게 된 이안사는 미리 가솔과 병사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170여 호의 백성을 이끌고 강원도 삼척으로 떠났다. 그런데 예전에 다투었던 그 전주 별감이 또다시 삼척 안렴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이안사는 동북면(의주/宜州, 지금의 원산)으로 피신했다. 이곳에서 세력을 키워 훗날 그의 후손인 이성계는 함흥에 정착, 고려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성장하였으며 결국은 유약한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성계가 고향 전주를 빛낸 사건은 당시 남원까지 쳐들어온 왜구를 소탕하여 큰 공을 세운 '황산대첩(荒山大捷)'이었다. 그리고 남원에서 전주로 돌아와 승전을 자축했던 곳이 바로 조상 목조(穆祖)가 살았던 오목대(梧木臺, 전북 기념물 16호)다. 오목대는 완산 칠봉 앞마을에 솟은 언덕 위에 자리한 곳으로 전주 고을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다. 이성계와 함께한 전주의 역사는 바야흐로 이 오목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주 오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 16호)

전주는 조선 시대에 들어 본격적인 왕가의 비호를 받게 되어 국내 도읍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전주부'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것은 태종 10년(1410)에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고자 이곳에 태조의 어진(御眞, 임금 초상화)을 모시기 위하여 경기전(慶基殿, 사적)을 건립한 사실이다. 이후 태조의 어진은 경주(집경전), 평양(영송전) 등지에도 봉안되었다. 또한 전주 고을 사또가 중앙의 고위 관리를 영접하고 아울러 한 달에 두 번 궁궐을 향하여 망배례를 올리던 객사(客舍)를 지어 '풍패지관(豊沛之館, 보물)'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풍패'란 이름은 중국 한 나라 고조 유방(劉邦)의 고향이 중국 강소성 '패(沛)'군의 '풍(豊)'현이란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로부터 전주에서는 '풍남문', '풍년제과' 등 '풍(豊)'자를 사용한 건물들이 유행하였다.



전주 경기전(사적)

뿐만 아니라 전주 객사인 풍패지관과 함께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곳이 바로 성종 3년(1472)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 사고(全州史庫)다. 이 건물은 전주 고을의 가장 성스러운 처소인 경기전 옆에 세워졌으며



전주사고(복원), 전주시 제공

조선왕조실록은 서울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 등 4곳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고 오로지 전주 사고본만 당시 사고를 관리하던 유생 안의(安義), 손홍록(孫弘祿) 등이 실록을 정읍 내장산 은성암의 바위굴에 옮겨 화를 면하였다.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보존해 온 것은 바로 전주 사고의 덕분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은 다시 복사를 하여 서울과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태백산 등지에 보관되었다.



전주 풍패지관(객사, 보물), 국가유산포털 제공

전주 고을이 더욱더 대 고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은 영조 10년(1734)에 이룩한 전주부성 개축 사업이었다. 전주부성은 원래 고려 시대부터 존재하였지만 정유재란으로 크게 무너진 것을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중건하게 되었고 이때 도



전주 풍남문(보물), 국가유산포털 제공

성의 남문인 풍남문(豊南門, 보물)은 영조 43년(1767)에야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이밖에도 전주 도성에는 완동문(동문), 패서문(서문), 공북문(북문)이 있었다.

그러나 전주에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 점차 일본인들이 들어와 상권을 형성하면서 결국 1937년에는 전주 도성이 철거되고 풍남문만 유일하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전주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때부터 시민들은 전주의 상징인 경기전과 전주 향교를 둘러싸고 그 일대에 거대한 전통 가옥 마을을 짓기 시작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빛을 보게 된 곳이 바로 '전주 한옥 마을'이며 이제는 연간 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의 발길이 닿는 문화 명소가 되었다.

전통문화의 고장 전주 한 복판에는 이색적인 문화유적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전주 전통 성당(사적)'이다. 경기전이 있는 이 동네를 '전동(殿洞)'이라 부른 데서 '전동 성당'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고딕 양식의 본체에 비잔틴 양식의 첨탑이 장식된 이 성당은 역사적 발자취와 우아하고 아름다운 서양의 고전적 건축미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로 인하여 전주의 빼어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정조 15년(1791) 신해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했던 터로서 고종 26년(1889)에 프랑스 출신 보두네(Baudouinet, 1859~1915) 신부에 의하여 성당 건물이 착공되고 1914년에 완공되었다.



전주 전통성당(사적), 전주시 제공

조선 시대에 호남 땅은 조선 왕실 재정의 삼분의 일을 담당할 정도로 농업 생산량도 많고 조선 팔도 중에서도 물산이 가장 풍부하였는데 이러한 곳에서 지역 행정을 총괄했던 중심지가 바로 전주 고을이었다. 그리하여 도시에는 산해진미가 넘쳐나고 끝없이 펼쳐진 들녘에서는 풍년 농악에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선비들은 시, 서, 화에 솜씨를 발휘하였다. 전주에서 찍어낸 '완판본 열녀 춘향 수절가'는 판소리 '춘향전'의 고전적 텍스트가 되었으며, 조선의 마지막 어진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초서에 능했던 서예가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다섯 손가락으로 붓자루를 송두리째 감아쥐고 글씨를 쓴 악필(握筆) 서예가 석전(石田) 황욱(黃旭),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작품이 실렸던 시인 신석정 등은 근 현대에 전주를 빛낸 예술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는 문인들의 서책과 전통 가옥의 창호에 쓰이는 질 좋은 전통 한지 생산의 고장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고급 한지와 대나무를 사용하여 합죽선과 다양한 부채를 만들던 공예의 고장이었다. 이러한 예향 전주의 문화적 배경을 안고 정부에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무형 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세우게 되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제공

오늘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전주에는 '전주 비빔밥'과 '전주 콩나물국밥'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득한 상차림의 '전주 한식'의 구수한 옛 맛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

무령왕릉 묘실 내 장례과정의 복원

강원표(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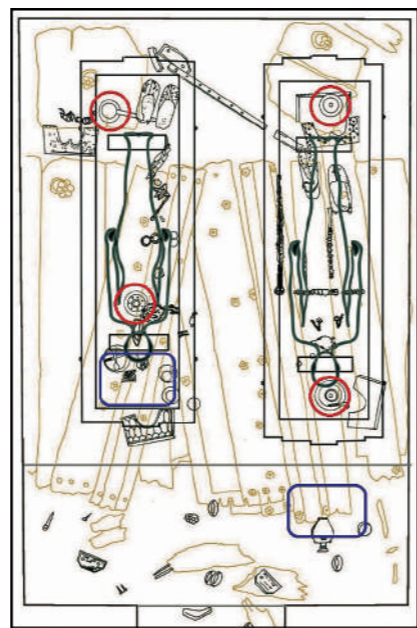
공주 왕릉원(옛 송산리고분군)에서 1971년 조사된 무령왕릉은 백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사 당시의 혼란과 이후 출토품에 대한 보고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 상장의례(喪葬儀禮)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무령왕릉에서 진행된 장례 과정은 앞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묘실 내에서 확인된 출토품과 출토 양상은 장례과정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적인 훼손이 진행된 상태였다. 묘실 내에서 더욱이 발견 당시 상세한 기록과 도면, 사진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또한 백제 상장의례에 대한 문헌기록도 소략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무령왕릉 신보고서』가 연속해서 간행되었고, 출토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보고자료와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무령왕릉 묘실(墓室) 내에서 이루어진 장례과정(葬禮過程)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무령왕릉 내에서 출토된 유물 중 왕과 왕비의 장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목관, 제대, 제기, 묘지석 등은 묘실 내에서 진행된 장례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직접 착용했거나 복식을 장식했던 장신구와 달리, 묘실 곳곳에서 확인된 제의 관련 유물은 그 출토 맥락의 분석을 통해 장례과정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무령왕릉 내 출토 위치와 목관의 안치 방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새롭게 보고·분석된 유물들을 살펴 최대한의 장례과정 복원안을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시신이 안치된 후 목관 앞, 묘실 입구, 왕릉 입구에서의 제의가 이루어졌음과, 각 제의에서 어떠한 기물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했다. 특히 파편만 보고되었던 주칠 목기의 형태를 복원하고 사용 위치를 확인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장례과정에서 시신 앞 제의가 행해진 장소, 묘지석의 안치방법 등에 변화가 있었음도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복원한 무령왕릉의 장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령왕은 사망 후 빈장지에 가매장 형태로 모셨고, 약 27개월이 지난 후 왕릉에 옮겨 안장되었다. 빈장지에서 운구된 시신은 묘실 내에 미리 준비된 목관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 부장품을 안치하고 뚜껑판을 덮었다. 목관이 놓인 관대 앞, 묘실 바닥에서 왕을 위한 제의를 행했다(<그림1-우측>). 그 다음 묘실과 왕릉 입구를 연결하는 연도의 중간을 목문으로 막고, 묘지석과 매지권, 진묘수 등을 놓은 뒤 입구를 폐쇄했다. 묘실 앞과 연도에서 이루어진 제의 흔적은 왕비의 장례 과정에서 제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묘지석은 두 매를 상하로 겹쳐 놓았다.

왕비의 장례 때에는 우선 입구를 열고 연도의 기물을 모두 치웠다. 그 다음 왕의 장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시신을 준비된 목관에 안치했다. 그리고 목관 앞에서 제의를 진행했는데, 사용된 기물의 구성과 방식(사용된 기물들을 모두 관 내에 부장한 후 뚜껑판을 덮는 등)에서 왕의 장례와 차이가 있다(<그림1-좌측>). 왕비의 관 앞에는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장철모를 세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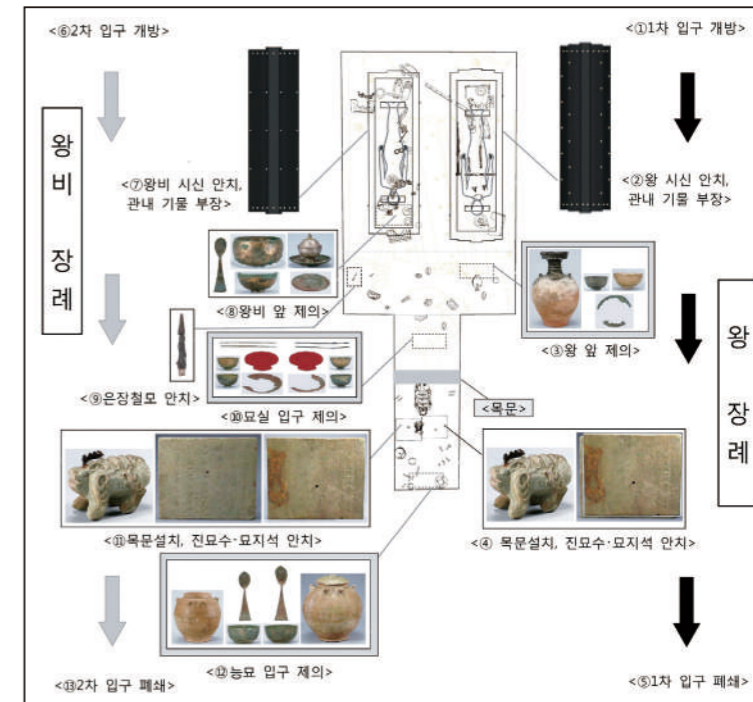


<그림1> 무령왕릉 내 왕과 왕비의 목관 및 제의 추정 위치(파란색 □)

묘실 입구에서 발견된 제대에는 모든 기물이 2개씩 세트를 이루고 있어 왕과 왕비 모두를 위한 제의를 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청동 기물 함께 백제의 고유한 제기로 추정되는 주칠 목기를 사용했다(<그림 2>). 그 다음 연도 중간을 목문으로 막고 진묘수, 묘지석을 놓았다. 이 때 왕과 왕비의 묘지를 나란히 놓고 오수전을 올렸다. 능묘 입구에서 다시 한 번 제의를 행했고, 전돌을 쌓아 입구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렇게 복원한 전체 장례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2> 묘실 입구 제대의 청동 제기 및 주칠 목기 복원안



<그림3> 무령왕릉 왕과 왕비의 장례과정 추정도

고대 동아시아에서 상장의례는 인간이 통과해야 하는 많은 의례 중 하나였다. 특히 왕실과 같은 최고위층에게는 후손들이 선대의 지위와 권위를 물려받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 백제는 중국 예서(禮書)와 경서(經書)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으며 유교적 상장의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령왕릉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벽돌로 만든 전실묘이며, 중국제 기물이 다수 사용되었다. 또한 삼년상, 진묘수, 묘지석, 매지권, 묘실 내 제의 등 중국적 상례문화의 요소들도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삼년상 기간 동안 복상이 아닌 빈장을 치른다는 것, 화려하게 장식하여 묘실 내에 미리 준비한 목관, 빈장지에서 운구되어 온 시신을 준비된 목관으로 옮긴 뒤 부장품을 주변에 안치, 머리에서 발까지 수많은 금은제 장식과 구슬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 목관 안에 동경과 다리미 같은 상징성 높은 기물의 부장하는 것과 묘실 내 제의에 사용된 기물 구성 등은 백제의 장례 전통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무령왕릉에서는 백제 장례 전통과 중국 장례문화의 영향이 모두 살펴진다. 이것이 웅진기 백제와 중국 양나라의 밀접한 외교 관계로 인한 특별한 사례인지, 백제 상례문화의 변화 과정인지는 좀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한성기와 사비기 상장의례 양상이 좀 더 밝혀지면 중국의 영향 속에서 백제의 고유한 상장의례가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되었는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매체로서의 금석과 18-19세기 소동파상: ‘건릉기유’명 월동본 <소문충공유상>을 중심으로

김울림(국립익산박물관 관장)



관공(關公)(1749~1806), <소문충공유상> 1789, 탁본: 종이에 먹, 124×61.5cm, 원각 소재미상. 소식의 해주 유배시기를 표상하는 이미지로서, 월동지역, 즉 광동과 광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월동본 이라 약칭되었다. 단전에 기를 모아 호흡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해석되어 본고에서 처음으로 ‘입선태식도’라 명명 되었다. 태식도의 신선같은 자태는 나중에 입극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흔히 소동파라는 호로 더 유명한 소식(蘇軾)(1037~1101)은 「적벽부」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당송팔대가의 한 명으로서, 거듭되는 모함과 유배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고결한 헌신과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투혼을 보여줌으로써,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에서 높이 숭상되어 왔다. 그를 기리는 소동파상은 그의 생일인 12월 19일마다 거행되던 배파제(拜坡祭) 혹은 수소회(壽蘇會)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특히 18-19세기에 그 제작과 유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의 소동파 숭모풍조와 이를 공통분모로 하는 한중일 지식인의 긴밀한 연대와 우의를 상징하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된 바가 없던 새로운 소동파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도상적 특징과 의미를 해석함과 동시에, 동시기 금석학자들의 논쟁을 통해 이들이 의도적으로 무시, 배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추적하였으며, 아울러, 그 결과는 기존의 한중일 소동파상의 유행에 어떠한 양식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본고에서 소개되는 ‘건릉기유(乾陵己有)명 월동본(粵東本)은 분석 결과, 도교와 관련된 소동파상임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 상은 수염을 휘날리는 신선의 모습으로 도의(道衣)를 갖추고 양손을 배 앞에서 모아 단전에 기를 모으는 특이한 도상이 특징인데, 논문에서 이 새로운 도상은 ‘입선태식(立仙胎息)’이라 명명되었다. 태식이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과 배꼽을 통해 원기를 받아들인다는 데서 유래된 도교적 호흡법이다. 소식의 문집 등에서 보이는 그 자신의 언사를 분석한 결과 ‘태식법’은 연단술에 깊이 빠져들었던 해주 백학봉 유배시기와 깊이 관련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교적 도상의 파생 원점은 해주를 중심으로 한 월동 일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동본’과 도상을 공유하는 현존 작품들의 실증적 분석은 이들이 대체로 18세기에 갑자기 출현하고 19세기에 들어 도상적으로 분화하는 양상이 포착되어, 18~19세기 동아시아의 소동파 숭모 풍조가 그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도 확인된다.

송나라 ‘진상(眞像)’을 찾는데 평생을 바친 옹방강(翁方綱)(1733~1818), 왕문고(王文誥)(1764-?) 등 북경의 금석학자들은 긴 수염을 휘날리며 태식에 집중하는 ‘염선계(鹽仙界)’계 입선태식 도상의 갑작스런 출현을 대체로 외면하거나 교묘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에는 낯설었을 ‘염선계’ 동파태식상은 18-19세기 월동지역에서 크게 확산되어만 갔다. 해주 유배기를 상징하는 입선태식 도상의 특징이었을 풍염한 수염과 신선이라는 호칭은 담주(현 해남) 유배기를 대표하는 도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본래 해남 유배시기 우중입극(雨中笠屐) 고사는 신선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입극도 중에 신선처럼 수염이 많거나 신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태식도에서 전염된 ‘염선’이 도상적 차이와 무관하게 하나의 양식으로서 19세기를 풍미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금석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선태식 도상 나아가 염선형 양식이 금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간 사실은 더 의미심장한 미술사의 아이러니이다. 월동본의 확산에 있어서 모종의 정통성과 신빙성을 부여한 것은 금석학자들의 고증이 아니라 금석과 탐본이라는 도구적 매체 그 자체였고, 이는 이 시기에 있어서 금석이 단지 금석학자만의 전유물을 넘어서 대중적 기호와 열망의 대상으로 저변화되었으며, 이미지 고증의 논리 이전에 이미지 보급의 도구로 복무하였음을 반증한다. 이 시기 금석과 탐본이라는 매체는 금석학자들의 논증 없이도 그 자체가 진품보증서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본고의 의의는 첫째, 도상적 측면에서, 담주 유배시기의 우중입극 고사를 내용으로 한 입극도에 치중되었던 기존 소동파상의 이해를 넘어서, 해주 유배시기 연단술 탐구와 관련된 입선태식 도상의 범주를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함으로써, 이 시기 소동파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동파입극도의 소개가 최근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된 주지번계 입극도 발굴의 계기가 된 것처럼, 동파태식도라는 새로운 도상의 명명과 더불어 이제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의 신자료 발굴과 재조명이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동양사와 동양철학, 한의학 분야에서만 논의되던 소동파와 도교와의 관련성을 보다 분명한 시각자료 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게 되어 그 이미지가 입극도만큼 빈번하게 인용되고, 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식적 측면에서, 19세기 한중일을 풍미하였던 수염을 휘날리는 소위, 염선형 소동파상 양식의 파생 원점을 해주를 중심으로 한 월동 일원의 입선태식도로 추정된 최초의 연구성과이다. 회화양식의 주된 변모와 전개를 태식도라는 단일한 도상에서 고찰함과 아울러, 태식도와 입극도 등 각기 다른 도상의 복잡한 분화와 혼입의 과정의 결과 남겨진 흔적, 즉 수염과 신선이라는 단서를 통해 그 양식적 영향관계의 기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수염을 휘날리는 왕춘파본, 지운영본과 같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 동파상의 발원과 관련하여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매체적 측면에서, 동양회화사의 비주류로 여겨지던 금석과 탐본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석학과 서예사 연구에 있어서 신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옹방강과 왕문고의 언설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염선계 태식상과 염선형 입극도 등이 이들 금석학자들의 고증과는 반대로, 최소한 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산된 현상을 관측하고, 이미지 고증 논리로서의 금석이 아니라, 이미지 보급의 도구로서의 금석이라는 매체 저변화의 부수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19세기 금석과 탐본을 개별 작가의 서법이나 학문과 관련하여 고찰하기 보다는 순수한 다종의 시각적 기호자료의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려 후기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의 해석과 의미

이준광(리움미술관 학예연구원)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청자에는 불교문화의 여러 단면이 담겨 있다. 그중 범자(梵字)가 새겨진 상감청자는 불교 중에서도 밀교와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을 것이란 점은 익히 알려져 왔으나 판독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전하고 있는 자료의 수가 적은 데다 잔존 범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이루어진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자료들을 판독하여 기존 자료들도 몇 가지 유형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도 1). 본 논문에서 범자 판독과 해석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도판1. (청자상감 진언문 접시 편) 내저면, 높이 4.7cm, 강진 사당리 23호 2호 건물지 중정 출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발굴

첫째, 청자에 상감된 범자는 진언(眞言)을 이루는 글자들이었다. 진언이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주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주문은 진언 또는 주(呪)로 칭하고, 긴 주문은 진언 혹은 다라니(陀羅尼)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고려 시대 당시에도 세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예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범자 주문을 '진언'으로 통일해 칭했다. 범자가 상감된 청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 범자 한 자만 있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옴 마니 반메 훔'으로 유명한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다른 진언이 결합한 유형이었다(도 2). 범자 한 자만 남아 있는 경우 해석을 유보해야 했지만, 그 밖의 범자들은 동심원 구조인 자륜진언(字輪眞言) 방식 속에서 '정법계진언', '육자대명진언', '감로수진언', '보루각진언', '구보살원주', '무량수여래심주', '멸악취진언'을 표기하고 있었음을 판독했다. 그리고 각 진언은 범자의 여러 글자체 중에서도 실담(悉曇, Siddham) 범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범자체는 <고려대장경(1236~1251)>을 비롯해 『범서총지집(梵書總持集)』(1156)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감청자 또한 고려 범자체 사용의 큰 궤 안에 함께 위치했음을 확인했다.



도판2. (청자상감 진언명 편), 고려, 13세기, 현 높이 3.5cm, 굵지름 7.8cm,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둘째, 제작 시기는 13-14세기에 걸친 것으로 넓게 보았다. 그러나 진언이 있는 동심원 구조의 상감청자 자료들은 제작 특징을 보아 13세기 말-14세기 전반으로 좀 더 좁혀 편년했다. 배치된 범자 중 '감로수진언'은 『범서총지집』민영규본(1218)에서 보이며, 서산 문수사 금동 여래 좌상 복장 유물에서도 '감로수진언'이 포함된 「진언, 다라니」(1346) 낱장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감로수진언'이 1218년 이후 14세기에 걸쳐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청자 자료의 제작 품질과 번조 받침 등을 고려하여 13세기 말-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상감된 진언들의 해석을 통해 모두 파지옥(破地獄)과 정토왕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다(도 3). 이를 근거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 중 일부는 시아귀회(施餓鬼會)와 같은 망자(亡者)를 위한 불교 의례에 사용했으리라 판단했다.

'정법계진언'은 법계를 정화한다는 의미이며, '무량수여래심주'는 아미타불의 마음을 깨닫는 진언으로 망자가 서방극락 정토에서 왕생을 바라는 진언이었다. '보루각진언'은 지옥, 아귀, 축생 등 모든 악한 세계를 깨부수는 진언이며, '육자대명진언'은 육도 중생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감로수진언'은 굶주린 아귀와 귀신의 목구멍에 음식이 흘러 들어가 마음껏 음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진언이며, '멸악취진언'은 죽은 뒤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소멸시키고 광명으로 인도하는 진언이다. 이상에서 다른 진언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죽음 → 업 → 악한 세계(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계 등) → 파괴 → 구제 → 아미타불 → 서방극락정토 → 광명'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 편들은 사찰에서 망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때 단(壇)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용도를 특정 지어볼 수 있다. '감로수진언'으로 인해 시아귀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더욱 구체화시켜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망자를 위한 불교 의례라는 것으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사당리 23호 요지와 '가'구역이 왕실용 자기 생산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례 또한 왕실 혹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도판3. (청자상감 진언문 접시 편) 구성 복원, 높이 4.7cm, (복원)입지름 21.3cm, (복원)굵지름 10.2cm, 강진 사당리 23호 2호 건물지 중정 출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발굴

넷째,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을 원대 자기와 비교해 본 결과 범자체와 범자 배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원대 자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원의 불교문화와 고려가 이미 품고 있던 밀교적 요소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들은 고려 후기 사회에 퍼져있던 개인적 밀교 의례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당장의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 데서 촉발된 밀교의 변화는 묘지(墓誌), 관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파지옥과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섯째, 다른 공예품과 비교할 때 공통점으로 실담 범자를 사용했다는 점, '육자대명진언'을 중심으로 활용했다는 점, 기와와 배치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 범종, 목관, 묘지의 진언과 의미상 상통한다는 점이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멸악취진언'과 '감로수진언'은 다른 공예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감청자 특유의 경제성과 제작의 용이성은 다른 공예품과 차별되는 장점으로 바로 이 점 때문에 범자 진언을 새길 기명으로 청자가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범자 진언명 상감청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출토품의 수량이 적다는 점은 시기와 용도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한다. 이후 추가 보고되는 자료가 있다면, 범자 진언명 유형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기와 용도를 더욱 세밀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고려 밀교사와 진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자도 주요한 자료의 일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회 50주년 기념식

9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회 50주년 기념식이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박물관회가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셨던 임원분들과 평의원님들, YFM회원, 자원봉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50년을 조망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은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박물관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꾀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임원진과 기부회원들, 관계자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이번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시간 속 우리 회의 발족 목표를 새롭게 되새기고, 앞으로의 50년에도 박물관 발전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로써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공로상 수상자

- 김정태(주작회원, 최고액 기부자)
- 윤광자(주작회원, 2019년 <경포대도>·<충석정도>, 2024년 <차운시> 기증)
- 신성수(현무회원, 국립중앙박물관회 14대 회장)
- 유상욱(국립중앙박물관회 9대 회장)
- 유창중(국립중앙박물관회 10·11대 회장)
- 홍정욱(YFM창립멤버)
- 소재구(1986년부터 40여년 간 정기답사 진행)
- 윤장섭·윤재륜·오윤선·윤보현(가족 3대째 기부회원)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사 발간

국립중앙박물관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의 역사 속 기록을 총망라한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을 발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기증·기부 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74년, 최순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예술계, 학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사업을 자발적으로 돕고, 국민들 스스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참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에서는 이를 위해 박물관회가 진행했던 다양한 후원사업의 시작과 과정, 결과들을 다룹니다. 박물관회의 활동들을 다룬 당시의 언론기사들과 회의록, 사업의 과정과 결과가 담긴 기록들과 사진자료들이 그때의 순간들을 생생히 전합니다.

1974년 8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이전 2주년 기념 ‘불교 무용의 밤’ 행사 중, 6월에 새로 임명된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관장과 박물관 동호인 홍종인 외 75명이 중심이 되어 평소에 구상했던 박물관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들 중에서 김문호, 김수근, 김철준, 박성삼, 백승길, 예용해, 이대원, 진홍섭, 최영희, 홍종인, 황수영 등 11명이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9월 9일에 발기준비위원들이 모여 박물관회 규약, 임원 선출, 향후 사업 계획과 회원 모집 등을 논의하면서 박물관회를 발족했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첫 번째 유물 기증은 1989년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골동상 ‘민예사’에서 구입한 <청자벼루>였다. 이는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대 초기에 제작되어 백제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유물이다. 박물관회는 이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국민들에게는 관람의 기회를, 전문 학자들에게는 학술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청년회의소는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서명과 모금 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343,712명의 서명을 받았고 22,176,310원을 모금하였다. 한국청년회의소는 모금액 전액을 한국박물관회에 기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회는 1996년에 <노안도>, <자수화조8폭병풍>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구입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에서

『국립중앙박물관회 50년』은 대중들에게 성숙한 박물관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증·기부문화의 확산이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로 이어지고, 나아가 박물관은 우수한 수준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대중에게 돌려주는 선순환(善循環)의 모습을 그립니다.



1989년 기증 청자벼루



1996년 기증 노안도



1996년 기증 자수화조8폭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의궤실 조성 협약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록 유산인 의궤儀軌는 ‘의식儀式的 規範軌範’이라는 뜻으로, 조선이 유교적 예치 禮治를 실천하는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의궤엔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와 장례, 국왕의 즉위식 등 비상시적, 혹은 특별한 이유로 행해진 의례나 행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대한제국의 황실이 사라질때까지 꾸준히 편찬되었으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장렬왕후준승도감의궤,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외규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 의해 약탈되었습니다. 1975년 故박병선 박사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의궤를 발견한 후 1991년부터 공식 반환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94년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협상을 재개하여 국민적 관심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011년 외규장각 의궤 297책이 영구대여형식으로 돌아왔고,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를 그 위상에 걸맞는 전용 전시실에서 대중에 선보이려 합니다.

이번 전시에선 프랑스에서 개장하기 이전 모습인 비단으로 만들어진 표지와 고급스러운 제책재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람용 의궤에 쓰인 최상품 종이, 정성스레 남긴 글씨와 그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물 책으로 전시되었을 때, 펼쳐진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의궤'를 적용하여 관람객이 의궤를 직접 넘겨보며 의궤 속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1686(숙종12),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 1683(숙종9),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또한 의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과 분류, 교정의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상과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우리나라로 귀환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는 외규장각 의궤를 만난 관람객들에게 전과 다른 영감을 줍니다. 3개월 단위로 의궤를 교체 전시하여, 1회 10책씩 연 40책을 공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외규장각 의궤가 가진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서 가진 높은 가치와 이를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보이려는 박물관의 의지에 공감하여 상설전시관 의궤실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전시실 설계부터 참여하여 6개월여의 사업 검토를 지나, 7월엔 의궤실 조성을 위해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박물관회는 외규장각 의궤실의 전시 설계부터 전시공간 조성까지 일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관람객 여러분에게 의궤를 더욱 입체적인 방법으로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설전시관 2층, 외규장각 의궤실에서 격조 있는 조선왕실 문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의궤실 조성 협약식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논문공모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4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전국의 박물관 학예직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에 이르는 학술상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대상

가. 학술논문

2024년에 게재된 학술논문(저서)으로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발간하는 연속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 2024년 출간된 전시도록 및 학술자료집에 게재된 논문
- 당해연도에 출판되고 공모분야에 해당하는 서적(저서, 공저, 번역서 포함)

나. 전시도록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발간한 전시도록
- 2024년부터 시작한 전시로 폐막일은 상관없음.

다. 다음의 경우 공모대상에서 제외

- 석·박사학위논문
- 국외 및 국내 순회 전시용 전시도록(순회 전시 중 첫 번째 전시도록만 허용)
- 외부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게재된 논문

공모자격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
- 학술상 응시는 1인 1편만 응모 가능(심사분야가 다른 경우 허용)
- 공동 저자의 경우 3인 이내 공저로 제한함.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발간한 전시도록
 - ※ 전시도록은 박물관명 또는 박물관 부서명으로 응모할 수 있음.

공모분야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 관련 학술 논문 또는 전시도록
- 논문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과 연관된 분야여야 하며, 세계문화도 포함한다.

수상구분

학술상	수상자	상금
천마상	1명	일천만원
금관상	3명	오백만원
은관상	5명	삼백만원
특별상	2기관(명)	삼백만원

*최종 수상자 규모와 높은 등급의 수상자가 없는 경우, 그보다 낮은 등급에서 수상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술상 등급에 적절한 논문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학술연구비 지원

학술상에 응모한 자는 소정의 학술연구비(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가. 학술상 공모분야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학술상에 응모하였으나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다. 저서 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원고료를 받은 경우.
- 라. 당해연도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제출서류

가. 학술상 지원서류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제출서류 1부(서식-01)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논문) 신청서 1부(서식-02)
 - ※ 반드시 지정양식(HWP파일)으로 제출해야 함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신청서: 공동저자 확인서(서식-04)
 - ※ 모든 공동저자의 확인서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 학술논문 또는 도서(PDF)
 - ※ 서적의 경우 PDF 파일 제출 선택할 수 있음. 단 PDF 파일 미제출 시 심사위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함.
- 논문이 게재된 인쇄물 1부
 - ※ 서적의 경우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 따라 별도로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나. 전시도록 지원서류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제출서류 1부(서식-01)
-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도록) 신청서 1부(서식-03)
- 전시도록 1부 (PDF파일)
- 전시도록 3부 (인쇄물)

다. 학술연구비 지원서류

-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서식-05)
- 신분증 사본 1통
- 금융통장 사본 1통
- 논문 게재, 심사비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중 택1 가능(사본 제출)

논문심사 기준

- 주제선정: 학술상의 논문유형 규정과의 부합성, 연구 주제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등
-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적합성, 자료분석의 적절성과 객관성 등
-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명확성, 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 등
-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공모일정

- 접수기간: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2월 28일 금요일까지
- 심사기간: 2025년 3월 4일 화요일 ~ 4월 하순
- 심사발표: 2025년 4월 하순경
- 시상식: 2025년 5월 중순경

제출방법

- 공모 신청 서류는 전자우편(yuninsik@fnmk.org)을 통해 제출한다.
 - 사무국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호
 - ※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공모 신청 서류 중 인쇄물(연속 간행물, 별쇄본, 전시도록 등)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다.
-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PDF 또는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 중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전시도록의 경우 필요 시 별도의 서류(박물관 확인증)를 요청할 수 있음.

참고사항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기관인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문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사항

-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2077-9795)
 - 담당: 윤인식 부장
- 사무국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호
- 이메일: fnmk1974@fnm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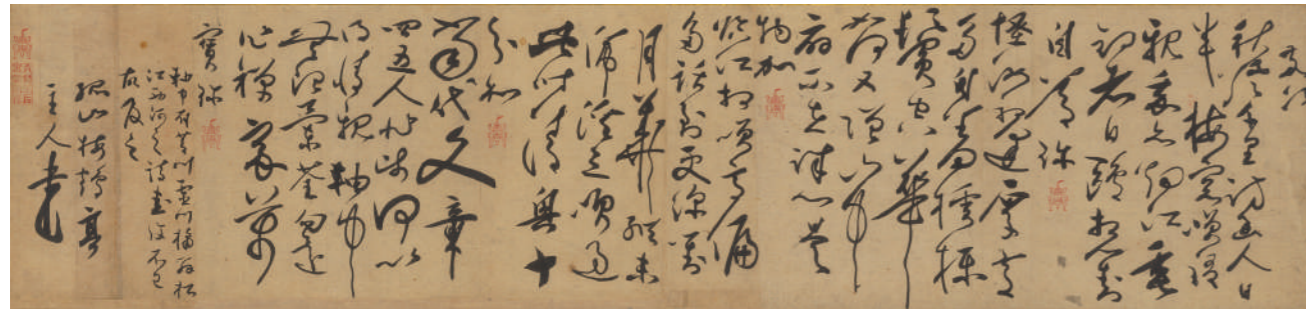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회학술상

2024 기증유물 <황기로 초서>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1525~1575)가 다른 사람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짓고 쓴 초서이다. 말미에 “축(軸)에 청천(靑川 : 柳希齡, 1480~1552), 영천(靈川 : 申潛, 1491~1554), 굴옹(橘翁 : 尹衢, 1495~), 송강(松江 : 趙澄, 1511~1574), 서하(西河 :)의 시(詩)가 있어 몇번씩 반복함에 그칠 수 없어 이에 시를 짓다”라고 하여 제작동기를 알 수 있으며 말미에 “고산 매학정 주인 쓰다(孤山梅鶴亭主人書)” 라고 한 것에서 진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필적은 소장자가 입수할 때 가로로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액자로 개장한 것이다. 오랜 세월에도 글씨가 손상되지 않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또 [백봉(白峯)]이란 솔모양 인장(鼎形印)이 다섯 군데 찍혀있고 말미에 [태사지후 충신지손(太師之後 忠臣之孫)]이란 장방인(長房印)이 찍혀있는데, ‘백봉’은 안동 김씨 김수빈(金壽賓 1626~)의 호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안동김씨 김선평((金壽賓 1626~)이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삼태사(三太師)의 한 사람이므로 그 후손에게 이러한 인문(印文)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초서 필적은 규모는 작지만 필획이 매우 간정(簡淨)하고 윤필이 활달하여 황기로 글씨의 진면목을 대할 수 있는 뛰어난 수작(秀作)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소개에서



황기로필 초서(중9491. 윤광자(故윤익성) 기증)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89년부터 국내외 중요 유물들을 환수, 기증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유물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유물은 조선 초기~중기에 활동한 서예가 고산(孤山) 황기로의 서예작품입니다. 명필가로 알려진 황기로는 초서(草書)에 아주 능하였다는 의미로 ‘해동초성(海東草聖)’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장욱, 회소, 장필의 초서풍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들의 서풍을 융합해 조선의 미감에 맞는 초서풍으로 발전시켜 조선 중기 초서풍의 유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황기로 초서>는 국립중앙박물관회 윤광자 회원님의 기부를 통해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윤광자 회원님은 2019년에도 <경포 대도>와 <총석정도>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회원님들과 기증가,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 등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 국내외의 우리나라 유물들을 구입, 기증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기증실에서 박물관회의 기증유물들을 만나보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유물 기증 활동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옥,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윤재륜 회장을 거쳐 2023년 11월 박은관 회장이 취임했다.

회장	박은관
부회장	윤석민 허용수
당연직	김재홍
이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홍정욱 봉욱
감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5,000여명으로 일반, 특별, 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차가원 (주)피아크건설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삼성전자	천신일 세종문화재단	이교상 서울가든호텔
	최두준 (주)동남유화	이규식 경신금융(주)
	최태원 (주)SK	이명희 일우재단
주작회원	허용수 GS에너지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김정태 前 하나금융그룹	허윤수 (주)ALTO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윤광자 국립중앙박물관회	허윤홍 GS건설	이주한 (주)삼익유니버스
	홍석조 (주)BGF그룹	이택경 메쉬업벤처스
현무회원	홍정욱 (주)올가니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박은관 (주)시몬느		장인우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신성수 고려산업(주)		정명훈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관회원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강덕수 前 (주)STX그룹	최웅선 (주)인팩
	경원스님 극락사	최정훈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권준일 Actium그룹	최철원 Might&Main(주)
	구재선 아이에스지주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홍정혁 BGF에코머티리얼즈
	김대환 (주)슈퍼리어/슈퍼리어 홀딩스(주)	홍진기 마리오아울렛
	김만옥 국립중앙박물관회	은관회원
	김승겸 서릉지주(주)	강승모 KP그룹
	김재훈 영풍제약	강원기 (주)오리온 베트남 법인
	김지연 (주)컨셉	구동희 LS MnM
	김지원 한세엠케이(주)	구분희 예스코홀딩스
	도형태 갤러리현대	권재현 반도건설
	류지훈 SB investment	김민수 (주)삼익악기 스펙코
	박경진 (주)진주햄	김영명 예울
	박병엽 前 팬택씨앤아이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선정 대선제분(주)	김은혜 지알엠주식회사
	박선주 영은미술관	김종한 종합전기(주)
	박영주 (주)아성	김지태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박용윤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태훈 두원중공업
	백진우 (주)동성케미칼	남태훈 국제약품
	변백현 아티스트	민준기 덴톤스리/(주)민병철교육그룹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류방희 (주)풍산건설
	송영숙 한미약품	마크테토 TCK Investment Management
	양홍석 대신증권(주)	박영정 V&S 자산운용
	우찬규 학교재	박주원 (주)시몬느/시몬느FC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박지원	두산에너지리티
서재량	국립중앙박물관회
성필호	광성기업
송 철	성문출판사
신병찬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유진현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유창중	유금와당박물관
윤현경	동화약품
이상재	(주)삼화택시
이우일	(주)유니드
이우현	OCI그룹
임지선	보해양조(주)
장승준	매일경제
정은미	블룸앤코
주신희	(주)푸르파트너스자산운용
최성환	SK네트웍스
한석현	SM엔터테인먼트
함영준	(주)오뚜기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홍정도	중앙그룹
홍정인	메가박스중앙(주)
황정환	(주)케이지에프

청자회원

강석훈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강호철	대교홀딩스
고기영	(주)금비
곽정현	KG모빌리티
구본권	LS MnM
구분상	LIG
구본욱	(주)LK
구용수	닥터구의원
구원경	에스코홀딩스
구원희	한성플랜지
구은성	LS 네트워크
구형모	LX MDI
국현영	세기상사(주)
김건호	(주)삼양홀딩스
김경영	국립중앙박물관회
김경희	illda
김낙승	PWC-삼일회계법인
김녕자	예울
김동관	한화그룹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호텔&리조트/로보틱스/건설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김동철	(주)서브윈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김미원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상윤	유리자산운용
김서준	(주)해시드벤처스
김석현	성신양회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김성완	스무디킹

김세연	전 국회의원
김연규	EKK Food Group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수	한국청소년연구소
김영혜	제일화재
김옥경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유석	(주)행남
김윤수	지리산문학관
김인순	한익한서울아트박물관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주	(주)NXC
김중학	서양화가
김주원	(주)서라벌
김태현	성신양회(주)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남재욱	(주)인젠트
노 석	석플란트치과병원
노재연	오로라월드
담서원	오리온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문수희	국립중앙박물관회
문윤희	아주컨티뉴엄(주)
민경남	국립중앙박물관회
민병철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박범준	케이디 코리아
박선경	용인대학교
박성재	성호전자
박세창	금호건설
박재상	방송인
박재연	성곡미술관
박재영	(주)두리/(주)그린스톤
박정빈	(주)신원
박정원	재미교포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박향미	국립중앙박물관회
박혜성	Pulan
방정오	TV조선
배용범	KKR Asia Limited
배윤식	(주)한국체인모터
봉 옥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경선	(주)대명건설
서동임	국립중앙박물관회
설윤석	대한광통신
손원락	(주)경동인베스트
송재준	(주)컴투스/(주)크릿벤처스
송지수	동화기업
신연균	아름지기재단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신지연	JS뮤지엄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신춘수	오디컴퍼니(주)

신혜수	디블록자산운용(주)/디블록그룹
양승화	(주)DSP 홀딩스 /(주)두성테크
양인집	어니컴(주)
양태희	(주)비상교육
어호선	VTI파트너스
오경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승민	동일산업(주)
오치훈	대한제강(주)
유동현	(주)인성
유영지	유금와당박물관
윤보현	(재)성보문화재단
윤승현	(주)뉴라이트전자
윤일영	영안(주)
윤정선	(주)성보화학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이규호	코오롱그룹
이기용	열화당
이만규	에머스퍼시픽
이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이보람	(주)성우하이텍
이선진	목금도갤러리
이승용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이영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용균	알스퀘어
이용진	(주)경농
이운경	남양유업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재욱	대주기공/전남일보
이주엽	대륭종합건설
이준우	흥아해운
이지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롯데쇼핑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이해진	NAVER
이 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혜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임채현	보해양조(주)
장동진	(주)파워맥스
장선익	동국제강(주)
장성진	글랜드프라이빗에쿼티
장우진	대한다업(주)
재단법인양현	
전영이	국립중앙박물관회
전영채	한길봉사회
전윤수	중국미술연구소
정영수	은산그룹
정영해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정재호	대호물산(주)
정지이	현대무비스
정해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조동길	한솔문화재단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
조연주	한솔케미칼
조영미	경동소재
조희경	광주요/(주)화요
진재욱	인터오페라
차원희	차병원그룹
천석규	천일식품(주)
최선묵	조광건업(주)
최세훈	(주)카카오/카카오페이
최원영	L Catterton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최인선	국립중앙박물관회
최재원	SK(주)
최창화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혜옥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훈학	(주)한국가구
한경원	(주)노루홀딩스
한봉주	국립중앙박물관회
한승희	중앙에너지
한영재	(주)노루홀딩스
허정석	일진홀딩스(주)
허진수	SPC파리크라상
허치홍	GS리테일
현명관	삼성물산
호종일	호성흥업
호창성	(주)더벤처스
홍범석	백미당
홍석표	고려제강
홍성표	고려상사(주)
홍원복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인관	Ike Investment
홍정국	(주)BGF
홍진석	남양유업(주)
황인규	CNCITY에너지(주)

백자회원

고석명	(주)크린텍
김용남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혜련	조각가
류현진	(주)코한인터내셔널
박영규	용인대학교
백의현	국립중앙박물관회
성순현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승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건무	前 국립중앙박물관
이경희	수필가
이영훈	前 국립중앙박물관
이은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이흥표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숙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청자	이화여자대학교
조기훈	국립중앙박물관회

조현지	국립중앙박물관회
지건길	前 국립중앙박물관
최경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최두남	서울대학교
최연석	MBK파트너스
한재경	국립중앙박물관회
황혜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수정회원	
강문석	국립중앙박물관회
고영애	국립중앙박물관회
권오경	전원건축
김경섭	충북대학교
김경희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성구	前 국립경주박물관
김성구	(주)샘터사
김성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소원	변호사
김수연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수정	UBS 은행서울지점
김영나	前 국립중앙박물관
김유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윤옥	前 대통령 영부인
김은희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김정욱	국립중앙박물관회
김창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김혜경	국립중앙박물관회
문명재	국립중앙박물관회
박승준	국립중앙박물관회
배기동	前 국립중앙박물관
배병률	국립중앙박물관회
배윤경	국립중앙박물관회
배재호	용인대학교
변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사경복	국립중앙박물관회
서성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설영기	대한여행사
성낙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송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신경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신광섭	前 국립민속박물관
신용규	유료통상 주식회사
신용옥	(주)유로커뮤니케이션
안상운	변호사
안취준	서울대학교
양재국	국립중앙박물관회
연정애	국립중앙박물관회
염혜옥	국립중앙박물관회
오경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오근정	국립중앙박물관회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우계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유영주	국립중앙박물관회
유희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윤여경	국립중앙박물관회
윤태숙	국립중앙박물관회
윤한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상기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선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성민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시영	대한관광여행사
이윤재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윤환	(주)홀리데이 여행사
이은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이인범	(주)아세아
이종미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종철	前 국립민속박물관
이지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영	(주)유니테크
임혜선	국립중앙박물관회
전영이	국립중앙박물관회
장성택	동진실업 대표
장세희	(주)SAC대표
장순애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건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정민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서원	농협중앙회
정서해	국립중앙박물관회
정양모	前 국립중앙박물관
정연중	한 의사
정영돈	(주)프라임메탈
정영현	(주)천마
정운남	정운남 치과의원
정은경	교사
조동복	국립중앙박물관회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차인환	국립중앙박물관회
최광식	前 국립중앙박물관
최봉순	국립중앙박물관회
최재영	국립중앙박물관회
최흥섭	인하대학교
허인효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승길	국립중앙박물관회
홍윤희	연세대학교
홍철환	국립중앙박물관회
황규희	국립중앙박물관회
황정숙	국립중앙박물관회
황충자	국립중앙박물관회

* 2024년 10월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1974-2024
50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